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김은희**

<차 례>

1. 머리말
2. 창의성 계발의 원리 -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
3. 가사의 문학적 특성과 창의적 가치
4. 가사문학과 창의성 계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서술하였다. 여기서 창의적 가치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가치, 인간다운 성장과 자아실현에 지향점을 둔 것이다. '창의성 계발의 원리'를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창의성 개념 및 특성들을 기반으로 고찰·정리하였고, '가사의 문학적 특성과 창의적 가치'가, 언어 구조물로서의 가치, 문학으로서의 가치, 고전시가-가사로서의 가치가 상호연관·중첩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집적물로서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내재한 창의적 가치 중심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가사문학이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유용함을 살폈다.

창의성은 결국 사물이나 세계를 새롭게 보는 능력을 말하며, 여기서 '새롭다'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능력과 그것의 구체적 산출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 계발'은 인간성에 내재한 창의성을 일깨워서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며, 구체적으로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

* 이 논문은 2014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덕성여자대학교

는 힘, 자기 주도의 학습 기획력, 공동체 관계적 사고, 리더십, 협동심, 책임감 등 인성적 요소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와 세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의 획득, 그것을 만들어내고 질서화 하는 능력의 발현,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능력의 계발이라고 볼 때, 문학만큼 적합한 대상은 없으며, 특히 고전시가 ‘가사문학’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가사문학의 교육적 가치 및 창의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① 이해 및 감상의 측면 : 전통가사의 특성 및 전승과 연결되는 지점, ② 창작 및 자기화의 측면 : 현대화, 현대적 계승과 연결되는 지점, 두 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①과 ②의 이원적·통합적 체험으로 완성되는 바, 현대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반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합적 경험은 문학 본연의 가치인 치유 기능까지 가능하게 한다. 즉 가사 읽기와 창작이 정서적 안정과 자아성찰, 나아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창의적 가치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은 오랜 세월, 수많은 경우들에 나타나는 온갖 심리적·정신적 장애들과 이 장애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문학적 장치들을 총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현재적 가치가 있다. 이처럼 가사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창작 체험은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고전을 통한 치유와 공감의 회복→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다.

핵심어 : 가사, 창의적 가치, 문학적 특성, 창의성 계발, 치유, 공감, 자아실현

1. 머리말

가사문학이 지닌 창의적 가치를 밝히고자 함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사문학이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¹⁾이기에 가사문학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창작의 경험이 창의성 계발에 유용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이다. 문학과 창의성의 관련을 부정하거나 그 활용에 회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입증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창의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듯하다. 이 글에서 창의적 가치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가치, 인간다운 성장과 자아실현에 지향점을 둔 것이다.

‘창의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적, 사회적, 특히 예술적 의미에서 중시되고 강조되어 온 개념이자 요소이다.²⁾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창의성’ 범람의 시대³⁾가 온 듯 그 관심이 뜨겁다.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광범위하게 소비·이용되면서 그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마저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손종현은 이 시대를 창의성 담론의 시대라고 언급하고,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창의성 계발의 교육논리를 내세우면서 창의성과 관련된 이율배반⁴⁾과 창의성의 사적 소유물화를 우려하기도

1) 이는 가사문학이 ‘언어, 문학, 고전시가’라는 특성으로 인한 창의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활동의 창의성에 관해서는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청람어문교육』 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21-24쪽 참고. 문학 및 고전시가의 창의성에 관해서는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1-40쪽; 한창훈, 「언어와 예술 자료로서의 고전문학과 교육-주로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36쪽; 정병헌, 「가사 교육의 현황과 창작의 필요성」,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연구회, 2008, 295-318쪽; 김병국,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42-44쪽;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등 참고.

2) Arthur J. Cropley 저, 이경화 외 역, 『창의성 계발과 교육』, 학지사, 2004, 22-24쪽 참조.

3) 관련 논의들은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한 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를 언급한다. 김중신, 앞의 논문, 11-13쪽; 최성아, 앞의 논문, 5-13쪽; 이미현,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가전(假傳)의 교육방안-「국선생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26-29쪽 외 다수의 창의성 관련 논문이 있다.

한다. 따라서 창의성이 인간존재의 본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고, 지적 능력이나 사고과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인 다양한 성질을 지닌 전인적(全人的) 의미로서의 ‘인격의 중심 정수’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⁵⁾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창의적 사고에 대해 “컴퓨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시대에 인간 존엄성의 최후의 보루”⁶⁾라고 하는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은 교육적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인간다운 성장을 통한 성숙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계발시켜야 하는 가치임은 분명하다. 창의성의 긍정적 의미와 가치는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과 창의성, 나아가 가사문학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사유이며,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임이 자명하다. 문학에 내재하는 보다 가치 있는 삶, 공감하는 삶에 대한 통찰은 그대로 창의성에 닿아 있기에 그러하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창의성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인의 과정이 될 것이다. ‘歌辭’가 문학의 일부이며 더하여 우리의 전통과 민족성, 우리 삶의 여러 양상들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현존⁷⁾하고 있는 갈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지점이 고전시가-가사의 창의적 가치가 확인·변별되는 지점이다.

더구나 ‘문학(예술)’이자 중요한 ‘교육 자료’인 ‘가사문학’과 창의성 계

4) 손중현, 「창의성 계발의 교육논리 : 지식·문화 생산의 ‘이야기꾼’ 키우기」, 『교육철학』 54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14, 111: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성을 부정하는 입시제도와 교과서제도를 운영하고, 그 제도에 복무하는 획일적 교실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또 초중등학교에서 키우지 못한 창의성을, 대학에서 핵심역량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다. ‘창의성 교육’ 개념과 그 실체가 오히려 인식의 허무주의를 증폭시키는 양상이라고 진단한다.

5) 손중현, 앞의 논문, 111-114쪽 참고.

6) Arthur J. Cropley 저, 앞의 책, 22쪽.

7) 가사문학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정병현, 앞의 책, 301-304쪽; 김학성,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사, 2015, 328-336쪽 참고.

발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사문학을 이해·전승시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이다. 그동안 학자이자 교육자인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그저 어렵고 귀찮은, 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지, 의미 없는 옛 문학 자료 취급을 받는 ‘가사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현재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논하고자 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가사문학의 가치와 전통에 기반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 가사문학의 내용 및 형식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찾아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창의성 계발’이라는 표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문학 교육⁸⁾ 방법론과의 관련성 또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창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곧 가사문학의 ‘교육적 가치’⁹⁾를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창의성 계발의 원리’를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들을 기반으로 고찰·정리하려 한다. 다음으로 ‘가사의 문학적 특성과 창의적 가치’를 정리해야 하는 바, 언어 구조물로서의 가치, 문학으로서의 가치, 고전시가-가사로서의 가치가 상호 연관되고 중첩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며, 가사의 현재성과 그 교육적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창의적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역사적 집적물로서 특히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내재한 가치 중심의 접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문학과 창의성 계발’에서는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몇몇 가사 작품들을 통해 구체화해 봄으로써 마무리할 것이다.

가사문학의 교육적·창의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①이해 및 감상의 측면 : 전통가사의 특성 및 전승과 연결되는 지점, ②창작 및 자기화의 측면 : 현대화, 현대적 계승과 연결되는 지점, 두 축의 접근이 될 것이다. ①과 ②의 이원적·통합적 체험은 현대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반으로

8) 김중신, 앞의 논문, 11-40쪽 참고.

9)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41쪽 참고.

서 가치가 있는 바, 이는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기에 그러하다.

한편 이러한 통합 경험은 문학 본연의 가치인 치유기능으로 정서조절까지 가능하게 한다. 일찍이 전통적인 문학에서부터 제시된 공감→카타르시스→통찰¹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의성 계발의 효용성에 연결되는 전인적 교육은 가능하다. 즉 가사 읽기와 창작이 정서적 안정과 자아성찰, 나아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창의적 가치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삶의 양상과 경우들을 거치면서 드러나게 된 온갖 심리적·정신적 장애들과 이 장애 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문학적 장치들을 총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¹¹⁾에 더욱 가치가 있다. 이처럼 가사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창작 체험은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치유와 공감의 회복→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다.

2. 창의성 계발의 원리 -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

‘창의성 계발의 원리’를 전통적-현대적인 창의성 개념 및 특성들을 기반으로 고찰·정리해 본다. ‘창의성’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발(啓發)’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것’¹²⁾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내재한 창의적 잠재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일깨워주는 것,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종현¹³⁾의 “창의성은 앎에 대한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

10)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문학치료연구』 제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참고.

11) 박태진, 「〈속미인곡〉 서술 방법에 나타난 상담의 특징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등 가사문학을 이용한 치유관련 논문은 매우 다양하다. 『문학치료연구』 참고.

1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에게 창의성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단지 앎의 지도 문제로서, 지도하여 계발할 따름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 창의성 계발은 근본적으로 자기계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르네상스 이전의 창의성¹⁴⁾은 ‘신비스러운 것, 초인적인 것, 신들 또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보는 종교적 시각을 유지했었다고 한다. 이는 ‘작가를 신이 영감을 불어 넣은 자’¹⁵⁾라고 했던 전통적인 문학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본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타고난 재능’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현대적인 창의성 개념¹⁶⁾은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관련 특성’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 - Guilford(1970, 1986)’,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 Sternberg(1988)’,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로부터 통찰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내는 능력 - Urban(1990)’ 등이 그것이다. 또한 de Bono(1990)는 창의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로 정의하면서, 진위를 따지기 위한 논리적 사고인 수직적 사고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탐색하며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수많은 사고의 통로를 생성하는 사고, 즉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관점 등을 모색하는 사고로 보았다. 따라서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적합하면서도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창의성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은 창의성이 확산적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및 독창성,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세

13) 손종현, 앞의 논문, 115쪽.

14)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은 최근 자료인 이경화 외, 『창의성』, 동문사, 2014, 25-36쪽 참고.

15) 박철희, 『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9, 16쪽.

16) 창의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이후 시작되었는데 특히 1950년 길포드(Guilford)의 창의성에 대한 기초연설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은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새로움, 남과 다른 독특함, 기발함,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것 생각하기,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관련 특성’이라고 보았다.

분화하고 명료화하는 정교성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Torrance(1988)는 창의성을 창의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기존에 관련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사고들을 조합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본다. 결국 창의성은 ‘문제 상황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며,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Arthur J. Cropley¹⁷⁾는 수세기 동안 화가, 조각가, 시인, 작가, 음악가 등 창의적인 예술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에 대해 흔히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매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한 가지 형태, 미지에 대한 대처와 이해의 방법 등으로 생각했다고 하였으며, 근대에는 창의성이 초전자로 해결되지 않는 공학 분야에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창의성의 세 가지 측면을, 참신성(창의적 산출이나 행동 그리고 창의적 사고 과정은 반드시 잘 알려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효과성(특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여기서 목표란 심미적, 예술적 혹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이윤을 얻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것도 가능하다.), 윤리(성)(창의성이라는 용어는 이기심, 파괴적인 행동, 범죄, 전쟁도발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을 들었다. 특히 윤리(성)는 창의성에 긍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새 무기가 효과적이고 참신하며, 심지어 앞에서 기술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그것을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창의성은 잠재적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창의성에는 윤리적 요소가 특히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이들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¹⁸⁾, 상상

17) Arthur J. Cropley 저, 앞의 책, 22-39쪽.

18) 이들 대부분은 창의성에 대한 연구, 특히 Torrance의 연구(1962, 1979, 1980, 1984, 1988)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들 능력은 Guildford(1967), Torrance(1966)

력¹⁹⁾등을 창의적인 사고의 특성으로 언급하는 공통성²⁰⁾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틀을 수용·정리하려 한다.

먼저 유창성(사고의 속도)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과정에서는 비교적 초기단계에 요구되는 기능이다. 융통성(사고의 넓이)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으로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생활의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유창한 사고 뿐 아니라 독창적 사고의 관건이 된다. 독창성(사고의 신기성)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사고에서 독창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고 질적으로 고양시켜 준다는 데 있다. 정교성(사고의 종합력)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의 최종단계와 관련되는 능력이다. 상상력(사고의 확장)은 경험세계의 범위를 벗어나 자기만의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사고력을 경험의 세계에서만 논의하게 되면 상상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언어 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상상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²¹⁾

이 글에서는 위의 5가지에, 기존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용성,

의 창의성 검사와 이경화(2003, 2013)의 창의성 검사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19)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청람어문교육』 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24-27쪽에서는 ‘상상력’을 포함시켜 5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미현, 앞의 논문, 29-32쪽에서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한두 가지를 더 포함시키거나, 빼기도 한다. 이경화, 위의 논문; 이미현, 앞의 논문; 최성아, 앞의 논문; 이정환, 「시 읽기를 통한 창의성 기르기」,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등이 그러하다.

21) 이경화 외, 『창의성』, 앞의 책, 34-35쪽. 이외의 창의적인 능력으로 민감성, 유추적 사고, 시각화, 어린이 같은 사고, 평가, 분석, 종합, 변형, 직관, 조급한 결론의 유보, 집중력 등을 말한다.

다양성, 유연성(포용성/개방성)과 윤리성(인간공정, 온유함, 자연 친화, 사회통합, 평화공존 등 ↔ 인간 부정, 파괴적인 행동, 사회 분열, 이기심, 범죄, 전쟁 도발, 대량 살상, 자연 파괴 등) 등을 더하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들을 가사작품과 연결 지어봄으로써, 그 창의적 가치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창의성은 결국 사물이나 세계를 새롭게 보는 능력을 말하며, 여기서 ‘새롭다’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능력과 그것의 구체적 산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의성 계발’은 인간성에 내재한 창의성을 일깨워서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며, 구체적으로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힘, 자기 주도의 학습 기획력, 공동체 관계적 사고, 리더십, 협동심, 책임감 등 인성적 요소의 획득²²⁾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자아와 세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의 획득, 그것을 만들어내고 질서화 하는 능력의 발현,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능력의 계발인 것이며, 문학만큼 적합한 대상은 없을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창의성’이 특히 문학성에 내재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며, 문학이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하되,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움을 추구(형상화)하는 특질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문학이 세련된 언어 구조체라는 점 또한 언어활동이 창의성 계발의 주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다. 언어활동 특히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은 창의적 사고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세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가사 또한 문학이고, 따라서 가사문학 안에 창의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구나 가사는 오랜 민족 문학적 전통을 담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성과 연속성을 지닌 양식이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 인문학적인 온유함,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22) 손종현, 앞의 논문, 119-120쪽.

이끄는 선한 의지,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세상에 대한 비판, 다양한 계층의 삶에 대한 관심²³⁾ 등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4음 4보격 연속체라는 형식요건과 전술양식²⁴⁾ 요건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양식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동기에도 ‘다양한 응용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사 문학 작품들을 생성·변화시키고 발전·확산되는 존재양상을 보여주는 바, 이 지점이 다른 문학과 변별되는, ‘고전시가-가사’에 내재하는 창의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상상력과 독창성에 기반한 ‘가사문학 감상과 창작’을 통해, 유창성과 정교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것이며, 융통성과 유연성, 유용성, 윤리성 등 창의적 본질과 그 가치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독창성은 ‘가사’의 현대화와 관련되는 지점으로 그 의미는 각별하다.

3. 가사의 문학적 특성과 창의적 가치

가사에 대한 다음 내용은 가사문학의 전통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모두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불변의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 가사 양식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의 심층에 잠재하고 있어 얼마든지

23) 이러한 서술에 대해, 토론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봉건사회의 모순과 가부장제의 문제 및 다양한 차별의 체계와 차이도 있고, 조선전기와 후기, 사대부 가사와 규방가사, 서정적 가사와 서사적 가사, 향유방식, 소통공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이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전반적인 가사의 문학적 특징-갈래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3장 참조)을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서술 특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가사 문학의 존재 양상 혹은 통시적 변화 등을 포괄하는 연구, 한 작품을 택하여 가사의 창의적 가치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논의하는 연구, 개별 작품의 교수학습 모델 제시 연구 등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4) 화행 짜임에서 서술의 평면적 확장을 지향하는 담화체 양식.

김학성,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앞의 책, 320-324쪽 참조.

현대적 장르로 부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인격도야와 정감적 설득과 정채(精彩)로운 미감을 공론화하여 다양하게 맞볼 수 있는 의의 있는 장르 ...”²⁵⁾

가사는 고려 말 발생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과 의식, 아름다움을 담은 의미 있는 갈래이다. 따라서 오랜 생명력이 의미하는 바, 가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감을 쉽게 담아내는 장르²⁶⁾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가사는 자연 친화, 우국(애국), 지식인으로서의 자세, 철학적 사유(유교적 이념), 남녀 간의 사랑, 이별, 고독, 여인 및 서민들의 삶의 애환, 여행, 버림받은 자의 내면(유배), 전쟁 체험, 해학과 골계, 풍자, 현실비판, 변해가는 시대상 등 우리 민족의 생활, 사상, 정서 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주제 및 소재,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우리 민족의 삶이 시대와 계층, 남녀를 망라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사문학이 지닌 융통성과 다양성, 유연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들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삶의 고비마다 떠오르는 감정과 사고의 본질들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송강가사의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연주(戀主)라는 내용,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의미망과 문화사적 의미가 아닐로그 세대에게는 역사에 대한 회억과 추억의 반추로 동질성을 강화시켜주며, 디지털 세대에게는 사랑이라는 만인의 공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나아가 교육이라는 관심거리를 제공해주는 등 언제나 당대적 문화조류를 선도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도 주

25)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보고서, 2015, 302쪽.

26) 김병국, 앞의 논문, 35쪽.

27) 가사 문학에 내재하는 이러한 창의적 가치들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연관되고 중첩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다양성과 유연성, 유연성과 융통성, 융통성과 독창성, 독창성과 상상력 등이 중첩·연관되며, 유용성, 유창성, 정교성, 윤리성 등은 다시 이들 특성과 다양하게 연관·중첩된다.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창의적 특성의 언급 및 나열은 유연하거나 개방적이다.

목해야 할 것이다.”²⁸⁾

이들테면 송강가사에 대해 위 서술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구세대 모두에게 각각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나, ‘언제나 당대적 문화조류를 선도할 수 있는 개연성’은 가사 일반의 특징으로서 창의성의 제1요소인 문화 생산의 독창성, 융통성, 유용성과 유연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상상력에 의한 사고의 확장 및 현재성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음 4보격 연속체 또한 가사문학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낮익고 손쉬운 형식장치’이자 ‘민족의 보편적인 율격양식으로 우리 미의식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쉽게 쓸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양식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²⁹⁾이다. 가사의 율격은 민족 고유의 내재적 율격이라서→쉽다→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창작(노래) 가능하다→시대를 초월한다. 현재성·현대성을 지닌다. 이상 나열된 가사의 특징들에는 유창성, 유용성, 융통성, 유연성과 다양성 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사는 발생 초기부터 감화력과 설득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격적 도야를 위해, 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는 바, 다양한 서술기법, 진술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가사 문학의 감상과 이해 나아가 창작 경험을 통해 다양한 미감을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삶의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 평가에서 가사의 문학적 효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교성 및 윤리성까지 내재하고 있음을 본다.

가사는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사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창작 과정은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창의성’을 의미³⁰⁾한다. 언어

28)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 콘텍스트화 방향」, 『고시가연구』 33집, 2013, 394쪽.

29)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300쪽 참조.

활동은 다양한 정신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언어 활동은 사고활동이며, 따라서 가사작품의 내용과 의미, 아름다움을 평가, 선택, 조직, 활용, 생산, 재구성하는 독창적 사고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사문학을 읽고 써 보는 경험은 창의적 사고를 유발한다. 문학 언어는 상상력이 구축한 세계여서 그 상상력의 구조를 해석하고 상상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하므로 창의적 사고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³¹⁾ 이렇게 볼 때, 언어활동의 가장 고차원적 결과물인 문학³²⁾, 그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의 결과물인 ‘가사문학’의 이해와 창작은 창의성 계발에 효과적인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가사의 미적 완성도는 짜임새 있는 언어 구조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문학적 형상화와 관련된다는 점³³⁾ 또한 언어 구조물로서 가사문학의 창의성, 즉 상상력과 독창성 및 정교성이 요구됨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특히 가사문학은 ‘고전’ 시가 문학과 이러한 ‘고전’ 시가의 이해와 감상은 통시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인 바, 오늘날 삶이 과거와 통시적 연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의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의 방법은 원인의 탐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삶의 원인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이다. ‘고전’은 과거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을 치유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근거³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물론 일차적으로 감상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대적 계승과 창작을 위해, 고어로 된 작품들을 특히 ‘4음 4보격 연속체’라는 기본 율격 및 가사

30) Arthur J. Cropley 저, 앞의 책, 22쪽.

31)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앞의 논문, 21-24쪽 참고.

32) 문학은 언어, 상상력, 현실, 사상과 감정, 지식, 감동 등을 중요요소로 가지고 있다.

33) 김학성,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앞의 책, 326쪽.

34)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5, 156쪽.

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살린 현대어로 적절하게 옮겨 놓는 작업이나 감상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고어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³⁵⁾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어라 하더라도, 감상자가 그 작동원리를 찾아내어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어를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전승시킨다면,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가사작품을 통해 예술적 표현에 눈 뜨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갖는 범 시대적·보편적 표현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구사나 일반문 작성 혹은 문예 창작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상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³⁶⁾ 가사는 문학이며 따라서 그 이해 및 감상과 창작체험은 단순히 지식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감과 통찰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고전시가로서 가사문학의 특성을 정리하는데, ‘가사’의 정체성³⁷⁾에 대한 다음 정리는 ‘가사’의 가치와 독특성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사’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야 그 창의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사의 정체성은 작자가 의도하는 메시지(화제)를 4음 4보격의 연속체로 다정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알리고 전달하는 양식으로, 다양한 서술기법과 전략에 의해 미적 완성도를 높여 문학성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에게 감화력과

35) 한창훈, 「언어와 예술 자료로서의 고전문학과 교육-주로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48쪽에서는 교육용 고전문학 데이터베이스화를 주장한다. 언어자료로서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참고자료의 구성과 그들의 연결을 위해 작품에 사용된 언어의 해독을 위한 뜻풀이와 주석, 용례는 물론이고, 작품 해석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망라되고 이들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36) 한창훈, 앞의 논문, 142쪽, 157쪽 참조.

37) 다양한 구체적 텍스트를 낳게 한 가사의 ‘양식’을 말한다. 즉 모든 가사 작품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시적 태도 혹은 질서원리-영원하고 지속적인 시적 태도-를 말한다. 이후 가사의 정체성 부분은 김학성 선생님의 논의에 기대어 전개한다.

설득력을 주는 데 독특성이 있다.”³⁸⁾

가사가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낮익고 손쉬운 형식장치이자 민족의 보편적인 율격양식으로 우리 미의식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는 4음 4보격 연속체라는 율격 장치를 통해 노래하는 특성을 말하고 있다. 4음 4보격 연속체라는 율격 장치는 우리말의 발화구조에 가장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말의 자연스러움을 훼손시켜야 하는 부담이 적어서 율격적 효과 창출에도 매우 적합하다.³⁹⁾ 이 율격장치가 바로 ‘노래하기’지향(다정하게 전달)이라는 진술 특성⁴⁰⁾이다. 노래하기 지향은 뚜렷하고 깊이 있게 기억하게 하고, 공감력을 높이는 진술 특징으로, 유창성, 유용성, 유연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창의적 가치를 입증한다. ‘가사’의 감상과 이해, 창작 체험을 통해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실생활 속에서 생각과 정감을 담아낼 수 있고 자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의 현대화에도 유용하며 그 현재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세세하게 펼쳐 서술하고, 조목조목 ‘다 갖추어 말하기’지향(자상하게 알리고 전달)을 보임으로써 서술의 확장이 일어나 ‘길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길다’는 가사의 형식적 특성은 바로 이 ‘자상하게’ 말하기에 의한 결과로서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유용성, 다양성, 유연성 등 창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사문학은 ‘다 갖추어 말하기 지향(서술의 확장)’과 ‘노래하기 지향(서술의 억제)’의 양 극단의 중간 영역에 있으면서 그 대립을 중화시켜 미감을 창출하는 담론 특성을 갖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감 호소(다정하게 말하기)에도 좋고, 설득력이나 논리적 명징성을 드러내는

38) 김학성, 「가사의 전통유형과 현대화 방향」, 앞의 책, 329쪽.

39)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15쪽 참조.

40)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268쪽 참조.

것(자상하게 알리고 전달하기)도, 모두 가능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절묘하게 조화-융합해내는가에 작품의 성격, 길이, 제시형식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융합의 양식적 특성에 내재한 유연성과 융통성은 개성적이고 각박한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독창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아와 세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의 획득, 그것을 만들어내고 질서화 하는 능력의 발현,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능력의 계발이라는 창의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긍정적 유용성을 지닌다.

거기에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은 독창성이 그 생명력임을 입증해 준다. 다정하고도 자상하게 말하기는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삶의 표현과 인간 소통의 긍정적 양상을 가사양식에서 수용한 결과로서 이제 영원하고 지속적인 가사 창작의 원리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가사 또한 문학이니까, 그 문학성 획득의 당위성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다양한 서술기법과 전략에 의해 미적 완성도를 높여 문학성을 획득하는 바, 가사는 작품을 더욱 정채(精彩)롭게 하기 위해 여러 진술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작품으로서의 다양한 미감을 맛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극적 양식에 쓰이는 대화적 수법(<속미인곡>)을 진술기법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우화적 기법(<계한가>)을 쓰기도 하고, 서사적 기법(<텐동어미화전가>)을 활용하는가 하면, 대상 사물에 대한 정감을 펼치거나(<상춘곡>), 선계 여인의 목소리를 빌어 서술의 품격을 높이는(<사미인곡>) 등 여러 다기한 서술기법을 활용하고 있음⁴¹⁾을 말한다. 단순히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술기법과 전략, 문체와 수사를 동원하여 ‘기록’에서 ‘문학’으로 끌어올려야 ‘문학작품’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짜임새 있는 언어 구조체를 만들어 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문학적 형상화 관련 내용으로,

41)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301쪽.

가사작품이 상상력에 기반 한 독창성과 정교성이라는 창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독창적이고 정교하며 다양한 문학적 미감의 체험은 그 예술적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감화력과 설득력을 주는 데 독특성이 있다 함은 가사작품이 궁극적으로 인격적 성장을 통한 성숙한 세상 만들기라는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는 양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삭막하고 파괴적인 현대 사회에서 인간 긍정, 자연 친화, 소통과 이해, 온유함과 도타움, 사회 통합, 평화 공존 등 윤리성이라는 창의적 가치가 그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음이다.

이상 가사의 양식적 정체성에 대한 정리는 가사의 현재성과 창의적 가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사가 지난 시대의 유물이나 골동품, 죽은 문학으로 취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사에 내재하는 창의적 가치의 인식과 활용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좋은 가사 작품 읽기를 다각도로 강화하고 언어적 난관을 극복하여 현대어와 같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는 고전 시가 문학으로서 다음과 같은 창의적 속성을 갖는다. 하나는 ‘문학’에 중심을 둔 것으로 오랜 전승을 통해, 끊임없이 향유되고 재해석되어 현재에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가사문학이 심미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향유자의 삶의 체험을 확대하는 현재적 실체임을 말한다. 다만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은 실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문학적 속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문학적 실체는 학습자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⁴²⁾ 이는 또한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체험을 확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임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고전’에 중심을 둔 것으로, 당대 삶의 모습을 담지하는 자료로서 문화의

42) 김중신, 앞의 논문, 26쪽, 35쪽

원형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사문학의 감상과 이해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작품이 하나의 교육 자료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⁴³⁾ 또한 ‘가사’에 중심을 둔 것으로, 낮익고 손쉬운 형식장치이자 민족의 보편적인 율격양식으로 우리 미의식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는 4음 4보격 연속체라는 율격 장치는 어떠한 메시지 전달에도 효과적이며, ‘다 갖추어 말하기 지향(서술의 확장)’과 ‘노래하기 지향(서술의 억제)’의 대립을 중화시켜 미감을 창출하는 담론 특성, 즉 포용-융합의 양식적 특성은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독창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는 자아와 세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시각의 획득,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능력의 계발이라는 창의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이해 및 감상의 측면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가사의 특성 및 전승과정과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 과거 삶에 대한 이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누적된 지혜와 누적된 아름다움을 통해서 ‘고전시가-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믿을만한 통찰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과 삶을 바로 보도록 하는 힘이 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태세를 바르게 갖도록 한다. 가사작품의 감상이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의 윤리적 의미와 효용이 여기서 확인된다.⁴⁴⁾

② 창작 및 자기화의 측면은 가사의 현대화, 현대적 계승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가사 창작의 체험은, 소외되고 결핍된 요소를 찾아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문학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며, 문학의 이해와 성장에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분히 지식과 이해에

43) 김중신,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자질」,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247-250쪽, 한창훈, 앞의 논문, 136쪽 재인용.

44) 김대행, 앞의 논문, 158쪽.

치우친 방식보다는 가사의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의 이해와 감상 과정 역시 창작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은 이해와 감상을 포괄하는 가치가 있으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⁴⁵⁾ 가사 작품의 창작경험은 가사문학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대인의 다양한 삶, 사상과 감정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담아내는 데 얼마나 유용하며 용이한 그릇인가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가사는 양식적으로 내재하는 다양성과 융통성, 유연성과 응용력을 발휘하여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현대가사로 새로이 창작·계승되고 있는 바, 가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방향⁴⁶⁾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가사의 아름다움과 가치, 현대적 존재 의의는 다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즉 개성적이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작자의 인격으로 말하는 서술특성으로 인해 작자가 진술에 책임을 지게 되며, 작품에 작자의 인격이 녹아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사 창작이 인격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다정하게 말하기는 현대사회의 각박한 현실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상대방을 정감적으로 설득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러 진술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작품으로서의 미감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⁴⁷⁾ 이처럼 가사문학은 감상과 이해, 창작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킬 뿐 아니라, 언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감과 소통,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① 감상과 이해, ② 창작 및 자기화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편의를 위한 이원적 설명일 뿐,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적 체험이 되는 바, 창의성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체험-가사의 현대화이다. 현대 가사의 창작은 현대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반으로서 가

45) 정병현, 앞의 논문, 296-300쪽.

46) 가사의 현대화는 김학성,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앞의 책, 329쪽 참조.

47)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301쪽.

치가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경험은 문학에 내재된 가치인 치유 기능까지 가능하게 한다. 가사 읽기와 창작이 정서적 안정과 자아성찰, 나아가 창의성 계발의 궁극적 지향점인 자아실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사’는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치유⁴⁸⁾와 공감의 회복→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는 창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4. 가사문학과 창의성 계발

가사의 정체성은 ‘歌辭’라는 명칭에도 드러난다. 즉 ‘노래하기(歌)’와 ‘다 갖추어 말하기(辭)’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의 조화·융합이 가사의 본질이며, 두 가지 성격을 충족⁴⁹⁾시킨 문학양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가사는 전통적으로 서정성, 서사성, 교술성, 희곡적 특성 등의 다양한 서술전략을 통해 그 문학성을 성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사는 다양한 응용력을 본질적으로 가졌으며, 따라서 모든 유형의 창작이 가능한 융통성을 내재하고 있다. 융통성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생활의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유창한 사고 뿐 아니라 독창적 사고의 관건이 된다. 독창성은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고 질적으로 고양시키는데 기여하며, 현재성과 관련이 깊다. 또한 가사는 문학-언어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언어 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상상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문학의 이해와 감상, 창작을 통해서 독창적 언어 활용과 문학적 감각을 배울 수 있고, 상

48)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집, 232쪽에서는 규방가사 <화전가>의 향유가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불안감, 인생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을 다룸으로써 가사의 향유를 통한 소통이 곧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방과 연대를 통한 치유적 소통의 맥락을 문화 콘텐츠화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이에 공감하게 된다.

49) 김학성, 「가사의 양식 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앞의 책, 보고서, 2015, 273쪽.

상력의 신장, 공감과 통찰을 통한 정서 순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앞에 정리하였던 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새로움/참신성), 정교성, 상상력과 유용성, 다양성, 유연성(포용성/개방성)과 윤리성 등 창의적 가치들은 가사의 문학적 특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상호 연관되고 중첩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융통성은 가사의 본질적 개방성과 유연성에 관련이 있으며, 유창한 사고와 독창적 사고의 관건이 된다. 유창성은 가사의 율격과 관련된 창의적 가치로서 노래하기, 다 갖추어 말하기, 엮음, 세세한 특징·종류·항목의 나열 등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독창성은 가사의 현대화 및 현재성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상상력과 참신성에 관련되며, 정교성은 가사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동시에 문학적 감동을 통한 감화력, 인격도야 등 윤리성에 중첩되어 깊어진다. 다양성과 유용성은 이들 여러 창의적 가치에 연관되어 있다.

이들 창의적 가치 중 유용성과 유창성, 정교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유용성’은 ‘자상하게 말하기’와 ‘다정하게 말하기’를 통해서 그 가치를 더 잘 드러낸다. ‘자상하게 말하기’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다정하게 말하기’를 통해서 정감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시켜서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공감 및 소통 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자상하게 말하기’와 ‘다정하게 말하기’가 융합된 가사작품에서 발생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현실적 삶에서 느끼는 고독, 슬픔, 아픔에 대한 승화 혹은 통찰에 도달하게 하는 바, 가사가 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은 가사의 장르적 특성으로서 대다수의 가사문학에 내재하고 있지만 특히 서정적 가사로 평가되는 송강의 <사미인곡>⁵⁰⁾이나 <속미인곡>, 허난설헌의 <규원가> 같은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본다. 이들

작품들은 ‘자상하게 말하기(다 갖추어 말하기)’를 통해 이별 후, 버림받은 여인의 고난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고,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드러낸다. 임 그리는 애절한 마음을 춘하추동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정성들을 열거하면서 표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자아를 등장시킨 대화체를 통해 자기반성과 성찰을 엮어가기도 하고, 독수공방의 고통, 임에 대한 원망, 사랑과 이별의 미묘한 감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아내기도 한다. 반면에 ‘다정하게 말하기(노래하기)’를 통해서도 상황해지려는 하소연과 슬픔을 울격적·형식적으로 응축시킴으로써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공감하게 한다. ‘자상하게 말하기’와 ‘다정하게 말하기’가 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그리움과 고독의 승화, 자기 통찰을 거쳐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속미인곡>에는 이러한 특성과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다. 유용성은 상상력에 의한 독창성과 연결될 때, 그 가치가 확대된다.

‘유창성’은 ‘사고의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 가사의 4음 4보격 연속체라고 하는 울격 구조는 ‘노래하기’ 기능과 연관되면서, 앞에서도 언급한 ‘다 갖추어 말하기’ 기능과 중첩되어, 궁극적으로 유창성이라는 속도감 있는 창의적 사고를 내재하고 있음을 많은 가사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양가>나 <농가월령가> 같은 장편의 풍속가사에서 확인해 본다. 764행(4음보 1행)인 <한양가>와 518행이나 되는 <농가월령가>는 그 길이에 있어 유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궁궐에서 시정으로, 단계적으로 한양의 전모를 담아내는 <한양가>는 매 단락 소재에 어울리는 표현과 어휘들을 열거와 대구, 영탄과 비유를 통해, 또한 상투적·세속적인 방법과 장중함과 엄숙함, 우아함을 숨써 좋게 변주하여, 능숙하게 엮어 나감으로써 18세기 한양의 모습과 시정풍속을 눈에 보이듯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

50) 이후 언급되는 가사 작품은 지면 관계상 구체적 작품 구절의 직접 제시는 생략한다.

해 낸다. 칠패(용산)의 백각전 (생선가게, 과일가게, 쌀가게, 빗·주머니·허리띠·방석·보료·담요·종이·두루마리 등 온갖 것을 파는 각색상전)과 큰광통교(남대문로 1가)의 육주비전(무명 파는 백목전, 종이 파는 지전, 옷감 파는 베전, 국내외 여러 물품, 바늘·비단·방석·고약·모자·중국산 사탕까지 파는 청포전, 온갖 서울 비단을 파는 선전, 말린 해산물을 파는 어물전), 작은 칼과 패물을 파는 도자전, 소광통교(광교)의 그림가게, 각색 약을 파는 구리개(을지로) 점방에 이르기까지 한양 시정의 각종 상점이, 물품 중심의 點景으로 소상히 구체적으로 나열 소개된다. 즉 “각식싱션 다잇구나~/ 각식실과 다 잇구나~/ 각식마포 드러쳤다~/ 각식쵸희 다잇구나~/ 가진당속 버러잇다~”와 같은 선행발화에 이어지는 구체적 물화의 열거를 통해 길게 부연되고 확장되는 양상의 규칙성이 특징이며,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형상화 된다.⁵¹⁾ <한양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급박한 호흡으로 빨라지는 장황하고 수다스러운 유창한 엮음들은 경쾌한 리듬감과 생동감을 통해 한양 시정의 활기와 변화를 효과적으로 노래한다.

<농가월령가> 또한 일 년 12달, 시간적 순서[月令]와 그에 따른 풍경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변화 및 해야 할 농사일과 그에 따른 당부를 자연스럽고 유연하며 섬세하고 조리 있게 서술한다. 특히 일감·음식·사물의 열거 등, 열거 기법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고유어·생활어 중심의 구어체로 표현·서술되고, 빠른 호흡으로 읽히면서 경쾌한 율동감을 형성한다. 농사 외에도 농촌에서의 생활과 세시풍속 등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조목조목 다 갖추어 말하고 있는 바, 꼼꼼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서술은 유용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농가월령가>는 농사일에 대한 구체적·사실적인 표현과 체험의 형상화가 이루어지며, 권유와 당부, 영탄과 명령, 설의와 다짐이 교차한다.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와 선명한 색감은 계절감으로 이어지고, 의성어·의태어가 활용되는 바, 사실적이고

51)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299쪽.

구체적인 생활감을 느끼게 한다.⁵²⁾ 이들 작품은 특히 소리 내어 읽으면서 감상할 때, 율동감과 유창함의 경쾌한 미감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창의적 가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형식구조에는 ‘정교성’이라는 창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데, 2개의 구가 짝을 이루어 2줄로 배열되는 ‘귀글체’의 미적활용에 관한 것이다. 즉 가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2음보로 된 안짜구와 바깥짜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대등하게 짝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행을 이루어 연속됨으로써 4음보에 의한 구조적 안정감과 유장한 율동에 의한 사려 깊은 생각을 담기에 적절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사 작품의 멋과 아름다움은 귀글체의 결합과 호응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귀글체의 치밀한 미적활용⁵³⁾은 가사의 문학적 감동과 예술적 가치를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가사문학 전반에 보이는 유기적 구조 및 대상에 따른 유연하고 유용한 서술의 변화,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웅장하고 화려한 반면 소박하고 평민적인 풍경의 공존, 평면적 설명과 입체적 묘사의 교직. 全景과 點景의 적절한 배치, 추상적 주장과 구체적 제시의 조화, 대상의 특징에 알맞은 효과적인 전개방식 등, ‘정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교성은 융통성과 유연성, 다양성으로 연결되는 바, 가사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동시에 문학적 감동을 통한 감화력, 인격도야 등 윤리성에 중첩되어 깊어진다.

특히 가사는 자유시의 시대에 정형시로서의 독특함이 돋보이는 바, 오히려 내재적·전통적 율격-정형이 지닌 안정감 안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율격을 풀어가는 자유로움이 그것이다. 이런 점이 젊은 세대에게 자기의 정감과 생각 등을 창의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되어줄 수

52) 김은희, 「<농가월령가>의 짜임새와 그 의미」, 『어문연구』 1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8쪽.

53) 김학성,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앞의 책, 앞의 책, 336쪽.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가사는 전체를 통제하는 율격-정형성은 있지만, 그 정형성 안에 허용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래서 현대 자유시 시대에 갖는 정형적 형식미의 안정감 + 내용적 자유와 다양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형성 안에서 변형이 허용되는 특성이 있는 점 또한 상상력, 독창성, 융통성 등과 연관되어 그 창의적 가치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한양가> ‘감상’은 다층적·구체적·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마치 수십 폭의 풍속화처럼 형상화해 낸 조선 후기 한양의 아름다움, 시정의 활기, 풍속과 세태, 18-19세기 변화해 가는 시대상, 한양에 대한 선조들의 자부심 등을 바로 보게 할 것이며, 4음 4보격이라는 율격의 유용성·융통성과 국어 표현의 절묘함에 눈 뜨게 할 것이다. 온유하고 화평하며 긍정적 말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며, 우리문화와 전통 속에 내재하는 자부심과 본질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을 부지불식간에 얻게 될 것이다. <한양가> ‘감상’은 21세기 변화된 서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서울별곡>(가제) 등 현대 가사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율격과 구조, 정교한 짜임새와 다정하고도 자상하게 말하는 서술 기법 등 가사 창작의 원리를 실제 활용하여 현대 ‘서울’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4음 4보격이라는 율격에 실어 수월하고도 정교하게 ‘서울’이라는 공간과 사람, 삶을 엮어가는 동안에 우리 가사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서울사람으로서, 개별적 인간으로서 ‘나’의 근원과 전통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적 자부심에 근거한 주체적 자아를 정립하게 될 것이다. 온유하고 화평하며 긍정적인 말하기를 체득하게 되면서 현대사회의 각박한 현실에서 위로와 소통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창의력이 문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인지발달의 최고목표이고, 가사문학이 창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면, 결국 가사문학의 이해와 창작은 최고 수준의 사고 능력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자료이자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창의성은 현대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가치이며,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바, 가사문학은 그 현대적 계승을

통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가치, 인간다운 성장과 자아실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를 서술하였다. 여기서 창의적 가치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가치, 인간다운 성장과 자아실현에 지향점을 둔 것이다. ‘창의성 계발의 원리’를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창의성 개념 및 특성들을 기반으로 고찰·정리하였고, ‘가사의 문학적 특성과 창의적 가치’가, 언어 구조물로서의 가치, 문학으로서의 가치, 고전시가-가사로서의 가치가 상호연관·중첩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집적물로서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내재한 창의적 가치 중심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가사문학이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유용함을 살폈다.

창의성은 결국 사물이나 세계를 새롭게 보는 능력을 말하며, 여기서 ‘새롭다’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능력과 그것의 구체적 산출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 계발’은 인간성에 내재한 창의성을 일깨워서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며, 구체적으로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힘, 자기 주도의 학습 기획력, 공동체 관계적 사고, 리더십, 협동심, 책임감 등 인성적 요소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와 세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의 획득, 그것을 만들어내고 질서화 하는 능력의 발현,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능력의 계발이라고 볼 때, 문학만큼 적합한 대상은 없으며, 특히 고전시가-‘가사문학’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사문학의 교육적 가치 및 창의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① 이해 및 감상의 측면 : 전통가사의 특성 및 전승과 연결되는 지점, ② 창작 및 자기화의 측면 : 현대화, 현대적 계승과 연결되는 지점, 두 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①과 ②의 이원적·통합적 체험으로 완성되는 바, 현대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합적 경험은 문학 본연의 가치인 치유 기능까지 가능하게 한다. 즉 가사 읽기와 창작이 정서적 안정과 자아성찰, 나아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창의적 가치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은 오랜 세월, 수많은 경우들에 나타나는 온갖 심리적·정신적 장애들과 이 장애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문학적 장치들을 총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현재적 가치가 있다. 이처럼 가사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창작 체험은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고전으로서 치유와 공감의 회복→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다.

결국 창의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에 기반 한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천이다. 창의성 계발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성장을 통한 성숙한 세상 만들기에 필수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사 문학의 존재 양상 혹은 통시적 변화 등을 포괄하는 연구, 한 작품을 택하여 가사의 창의적 가치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논의하는 연구, 개별 작품의 교수학습 모델 제시 연구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 논문은 제16회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 「가사문학의 가치와 미래」(한국가사문학관, 2015년 10월 16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도움을 주신 질의자 백순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5, 133-161쪽.
- 김병국,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31-62쪽.
-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299쪽.
- _____, 「〈농가월령가〉의 짜임새와 그 의미」, 『어문연구』 1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8쪽.
-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1-40쪽.
- 김학성, 「가사의 양식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266-303쪽.
- _____, 「가사의 전통 유형과 현대화 방향」,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304-337쪽.
- 박태진, 「〈속미인곡〉 서술방법에 나타난 상담특징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 박철희, 『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9, 16쪽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집, 232쪽
-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15쪽.
- 손종현, 「창의성 계발의 교육논리 : 지식·문화 생산의 ‘이야기꾼’키우기」, 『교육철학』 54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14, 107-141쪽.
- 이경화 외, 『창의성』, 동문사, 2014.
-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청람어문교육』 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21-57쪽.
- 이미현,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가전(假傳)의 교육방안-「국선생전」을 중

- 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이정환, 「시 읽기를 통한 창의성 기르기」,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31쪽.
-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문학치료연구』 제2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 정병현, 「가사 교육의 현황과 창작의 필요성」,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연구회, 2008, 295-318쪽
-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 콘텍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33집, 2013, 345-399쪽.
- 한창훈, 「언어와 예술 자료로서의 고전문학과 교육-주로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한국문학교육학회, 태학사, 2000, 135-162쪽
- Arthur J. Cropley 저, 이경화 외 역, 『창의성 계발과 교육』, 학지사, 2004.

<Abstract>

The Creative Value of Gasa Literature

Kim, Eun-hee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former researches, I describe the creative value of Gasa literature. The creative value is aimed for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values, growth of human and self-realization. I have reviewed and organized 'A principle of the edification of creativity' with the contemporary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s as a language structure, literature and classical poetry especially Gasa had been interrelated, amassed and realized as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the creative value of Gasa literature'. By attempting to approach from the value of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Gasa as a historical accumulation, it is investigated that the Gasa literature is worth in order to cultivate the creativity.

The creativity ultimately means the ability to see things and the world newly. It could be comprehended that 'Newly' means the ability of changing and developing the world positively and its specific producing. Therefore the 'edification of creativity' is standing for what enlightens creativity inherent in humanity and grow them humanly. It also enables the acquisition of characteristic elements such as the power to practice and know the value of coexistence and autonomy, learning planning ability of self-led, community relations of thinking, leadership, teamwork and responsibility, etc. If we regard it as a acquisition of a view that can be to live in balance between the ego and the world, manifestness of the ability to produce it orderly and edification of the ability to promote

harmonious coexistence, literature is the most effectual means, especially classical poetry – Gasa literature is confirmed to be more effective.

The value of Gasa literature as a text of an edification of creativity could be confirmed in two axes, ① a side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 the point where connected to the trad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Gasa and ② a side of creation and self-application : the point where connected to the modernization and modern succession. It is completed through dualistic and integrative experiences of ① and ②. As a base which led the culture of modern society, it also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content. On the other hand, this kind of integrative experience has a function of healing which is the natural value of literature. In other words, reading and creating Gasa can make emotional stability and self-reflection, and even self-realization in addition. This would also an ultimate oriented point of creative value. Especially classical literature has a current value because it has kept the many literary devices that was needed in order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disorders for many years. Thus understanding, appreciating and the writing experience of Gasa has a value that leads to self-realization through restoring a healing and empathy → restoring his nature by classics in a individual modern society.

Key words : Gasa, Creative value, Literary characteristics, Edification of creativity, Healing, Empathy, Self-realization

투고일 : 2016년 1월 15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